

INVITATION

신영자산운용
2019 투자자 포럼 초청

- 펀드운용 보고 및 펀드매니저와의 대화 -

【 모시는 말씀 】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그동안 신영자산운용에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당사는 올해에도 투자자포럼을 개최하여 투자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당사가 운용하는 펀드와 주식시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펀드매니저와의 대화를 통해 투자자 여러분과 뜻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 자 |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시 간 | 14:00~16:30

장 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 (자세한 위치 등은 참가신청시 확인 가능)

참가신청 |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syforum2019.co.kr> 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자산운용

안녕하십니까?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 2018년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10월들어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과 교역비중이 큰 한국이 타격을 받으며 2017년 상승분을 반납하고 상승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고객 여러분들께서 맡겨 주신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펀드 성과는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미국은 유동성 파티의 종언과 금리인상 등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의 복귀를 선언하며, 그간의 유동성을 거둬들이며 긴축에 나섰습니다. 미국 금리인상의 여파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무역 전쟁의 양상으로 격화되면서 이 또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국내 경기도 둔화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반도체 주도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기는 했지만 고용과 소비가 악화되었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는 다시 사상 최대 규모를 돌파하였습니다.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가계 빛은 늘어나 소비가 둔화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불확실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불안한 글로벌 경기, 그리고 그 속에서 구조적 성장 저하 등 자체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국의 상황은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항상 주식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팽배했을 때가 오히려 좋은 투자의 기회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주가 수준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기업들의 자산가치나 수익가치에 비추어 2008년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주주환원 정책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에 부응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의 시가 배당수익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내 주식시장이 상당한 저평가 수준이지만 단지 이 한가지 사실이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미래의 투자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방법은 경제와 산업의 부침 속에서도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량 기업들을 선별하여 충분히 싼 가격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난 22여 년간 고수해 온 이른바 "가치주" 투자입니다. 저희는 불확실한 투자의 세계에서 투자 자산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실천해 왔고 항상 결과는 이 방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다만 2018년의 투자성과가 고객 여러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준에 그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투자환경에 처해 있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고객 여러분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좋은 성과를 돌려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

신영자산운용은 임직원 모두가 일심단결하여 지속적으로 투자기회를 발견하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14일 4회째를 맞는 투자자포럼※ 에서 이러한 저희 펀드 투자전략과 향후 운용계획을 펀드매니저와 함께 짚어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매회 많은 격려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만큼, 저희 또한 운용을 임함에 있어 한걸음 더 진지한 자세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 신영자산운용 투자자포럼 : 2019년 3월 14일(목)오후2시~코엑스 오디토리움)

저희 신영자산운용을 믿고 소중한 자산을 맡겨 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자산운용 대표이사 허남권 **허 남 권**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 운용기간 : 2018. 8. 8. ~ 2018.11. 7.



목 차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 ▶ 재산현황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 ▶ 투자환경 및 운용계획
 - ▶ 기간(누적) 수익률
 - ▶ 손익현황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5. 비용현황
 -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 ▶ 총보수, 비용 비율
6. 투자자산매매내역
 -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 ▶ 최근 3분기 주식 매매회전율 추이

<공지사항>

<참고-펀드 용어 정리>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투자위험등급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채권)		30967	5등급(낮은위험)
펀드의 종류	채권형,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0.11. 8.
운용기간	2018. 8. 8. ~ 2018.11. 7.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신영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판매회사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외 4개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적용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품의 특징	국고채 및 우량 회사채 등의 안정적인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자산가치의 증식을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입니다.		

▶ 재산현황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채권)	자산 총액(A)	6,433	5,817	-9.58
	부채총액(B)	12	10	-16.35
	순자산총액(C=A-B)	6,421	5,807	-9.56
	발행 수익증권 총 수(D)	6,341	5,714	-9.88
	기준가격 ^{*)} (E=C/Dx1000)	1,012.63	1,016.22	0.35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채권)은 지난 3개월 간 0.35%의 수익률을 기록하여, 비교지수 수익률 0.54%를 0.19%pt 하회하였습니다. (비교지수 : 종합채권 1-2년 X 90% + CALL X 10%)

8월 미국 금리는 터키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과 상대적으로 완화적이었던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 채권시장에서도 8월 한달 간 전반적으로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국내 시장의 금리하락폭은 여타 국가의 하락폭보다 컸습니다. 이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물가 압력과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금리 인상 기대감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9월 국내 채권금리는 해외금리 상승과 높아진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월초 미국 임금상승률 상방 서프라이즈 발표를 기점으로 오르기 시작한 미국 10년금리는 월 중반 3%대에 안착하였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금리 또한 유로존 물가상승률 개선과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기대로 10bp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금리 상승압력에 더해 최근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과 금융불균형 심화 등의 이유로 한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이슈 또한 채권시장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10월 미국 금리는 3분기 경제지표들이 여전히 견실함을 보이면서 7년래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금리에 부담감을 느낀 주식시장은 10월 중순 이후 급락하였고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Risk off 심리가 퍼지면서 미 금리는 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 금리는 월초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인상 발언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월중반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금리가 하락하였고, 월중반이후 미중 무역분쟁 우려로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 주가가 급락하면서 금리가 추가 하락하였습니다.

당사는 11월 한국은행이 잠재수준의 성장과 1%후반대의 물가수준에서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여,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캐리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미중 무역분쟁 및 유로존 정치이슈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금리 상하방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어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미국은 양호한 경기 흐름속에 올해 3차례 금리를 인상하였고, 추가로 올해1번, 내년 3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2분기 성장률 호조와 함께 3분기 성장률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타이트한 고용상황과 견조한 임금상승률 등 미국내 경기 여건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이탈리아 재정문제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서 하방리스크 또한 상존한 상황입니다. 한편, 국내 시장은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가운데 고용과 물가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중 무역이슈 등 민감한 사안들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경기가 다소 부진하더라도 금융 안정을 위해 11월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리를 인상 하더라도 추가인상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서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이탈리아 재정문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불확실성 정도가 확대되었습니다. 국내는 아직까지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과 투자가 부진한 모습입니다. 11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어 2년이내의 단기물은 금리 인상후 매수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이벤트에 대한 시장반응을 지켜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 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년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채권)	0.35	0.95	1.29	1.62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9	-0.35	-0.61	-0.90
비교지수 ^{주)}	0.54	1.30	1.90	2.52

주)비교지수(벤치마크): 종합채권 1-2년(KIS) 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신영신종개인연금증권전환형(채권)	1.88	2.92	7.70
(비교지수 대비 성과)	-1.88	-2.79	-2.77
비교지수 ^{주)}	3.76	5.71	10.47

주)비교지수(벤치마크): 종합채권 1-2년(KIS) X 90%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48	0	0	0	0	0	0	0	3	-12	39
당기	0	30	0	0	0	0	0	0	0	2	-11	21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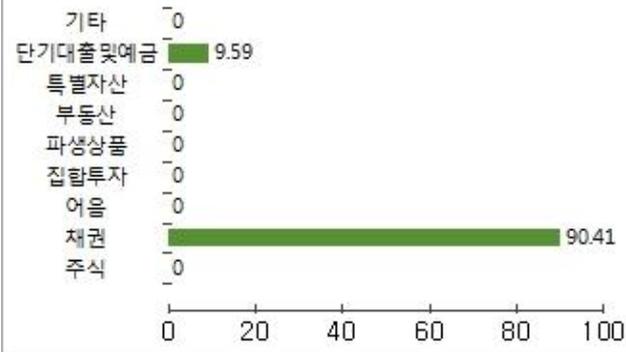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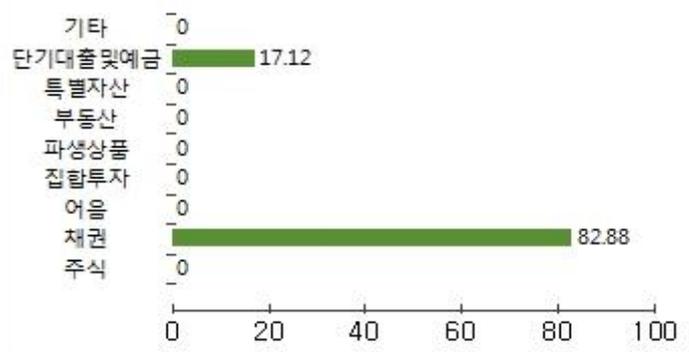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0.00)	4,821 (82.8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96 (17.12)	(0.00)	5,817 (100.00)
합계		4,821								996		5,817

* (): 구성비중

전기 자산별 구성비중



당기 자산별 구성비중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채권 (단위: 주,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액	발행국가	통화	발행일	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통안02140-2006-02	1,500	1,511	대한민국	KRW	2018. 6. 2.	2020. 6. 2.		N/A	25.98
통안증권0164-1908-02	1,500	1,499	대한민국	KRW	2017. 8. 2.	2019. 8. 2.		N/A	25.77
통안02160-2002-02	700	703	대한민국	KRW	2018. 2. 2.	2020. 2. 2.		N/A	12.08
국고02750-1909(14-4)	600	608	대한민국	KRW	2014. 9. 10.	2019. 9. 10.		N/A	10.45
우리은행21-08-이표03-갑-25	500	501	대한민국	KRW	2017. 8.25.	2020. 8.25.		AAA	8.62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단기대출	삼성증권	2018.11. 7.	500	1.53	2018.11. 8.	대한민국	KRW
단기대출	신한금융투자	2018.11. 7.	400	1.53	2018.11. 8.	대한민국	KRW
예금	국민은행	2011. 3.27.	96	1.15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개 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를 기재합니다.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출생연도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허남권	책임운용역	1963	67	6,733,650	1	8,113	2109000131
심창훈	책임운용역	1975	39	1,632,119	0	0	2110000545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 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구분	기간	운용전문인력
책임운용역	2011.04.29. ~ 현재	허남권
책임운용역	2017.12.18. ~ 현재	심창훈
부책임운용역	2016.01.11. ~ 2017.12.15.	심창훈
부책임운용역	2011.09.01. ~ 2016.01.08.	김창섭

※ 최근 3년간의 투자운용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주1)}	금액	비율 ^{주1)}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채권)	자산운용사	3	0.05	3	0.05	
	판매회사	8	0.12	7	0.12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1	0	0.01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12	0.18	11	0.18	
	기타비용 ^{주2)}	0	0.00	0	0.00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주1)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것입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구분	해당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비용비율 ^{주1)}	중개수수료 비율 ^{주2)}	합성총보수·비용비율	매매·중개수수료 비율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채권)	전기	0.7356	0.0038	0.7356	0.0038
	당기	0.7376	0.0035	0.7376	0.0035

주1)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공지사항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현행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신영신증개인연금증권전환형(채권)의 자산운용회사인 신영자산운용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외 4개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신영자산운용 홈페이지(<http://www.syfund.co.kr>) → 펀드정보 → 펀드명 검색 → 자산운용보고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http://dis.kofia.or.kr>) → 펀드공시 → 보고서 선택 → 자산운용보고서 선택 → 펀드명 검색 → 조회
- 이 자산운용보고서는 펀드 전체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 확인 및 고객정보 변경 처리는 펀드를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지점을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메일로 자산운용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보고서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객님의 발송해드리고 있으며,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 보고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전환 신청은 가입하신 판매회사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참 고 | 펀드 용어 정리

용 어	내 용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펀드	투자자가 원할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 펀드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펀드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펀드	투자신탁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펀드	통상 멀티클래스 펀드로 불립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 운용 및 평가방법은 동일합니다.
모자형펀드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자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익자총회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3분의 2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수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원징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 받는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 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운용의 안정성과 펀드환매시 소요되는 여러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